

자본가의 해고통지는 노동운동 입사원서

명동성당에 농성 중이던 한국후고꾸 노조간부를 만나러간 날, 그 곳을 찾은 한 해고노동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를 당하고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노동자에서 노동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녀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쉼없이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자.

백승연

동광산업노동조합 해고자(현 회계감사)

동광산업노동조합은 경기남부 안산의 반월공단 604블록의 산기슭에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기아와 쌍용의 하청을 맡고 있고 종사원 200여명중 조합원은 130명이다.

조합은 1989년에 설립된 후 전노협 창립 때부터 활동을 함께 했고 지역에서도 꾸준히 민주노조간의 연대활동도 열심히 해서 안산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조합이었다.

나는 92년 6월에 입사를 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대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조합원 평균연령이 40세로 나이가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조합간부로 활동할 사람이 많지 않았고 빈 자리가 많았다.

나는 노조에 대해서도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재미있게 일을 했다. 아줌마 조합원들은 그런 나를 예쁘게 봐주셨다. 현장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94년에는 조합 사무장으로 뽑혀 상근까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외국인노동자를 막 도입하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수생고용 반대투쟁이 있었고 공장학장으로 인한 공장이전대책사업에 무척 바쁘게

그런데 오전에 반장회의에서 임투가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발표했다는 것이 아닌가. “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믿을 수가 없었다.

쫓아 다녔고 성과도 많이 얻었다.

직권조인과 해고통지

그런데 96년 4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이 문제가 되었다.

조합에서는 96년 임투가 그 동안의 실패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현장토론, 임투전진대회, 준법투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치실히 진행시켜 나갔다. 회사측은 적자타령만 외쳐대고 있었고 교섭에는 무성의했기 때문에, 조합은 5월 10일 쟁의발생결의를 하였고 5월 18일 지역임투전진대회를 치르면서 조합원들의 열기를 최대로 모아내서 5월 23일 쟁의행위결의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5월 18일 지역의 임투전진대회에는 조합원 100명과 함께 풍선을 날리며 힘차게 집회에 결합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위원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위원장이 나타나길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난 5월 20일은 월요일이었고, 철야농성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오전에 반장회의에서 임투가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발표했다는 것이 아닌가. “꽝!”하고 하늘이 무

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믿을 수가 없었다.

긴급히 임금대책위 회의를 했는데 ‘직권조인’ 결과가 이미 지방노동위에 접수가 끝났다는 것이었고 우리 힘으로는 직권조인을 깨부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회사측의 탄압계획을 예상치 못한 아주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생각이었다.

회사측은 비밀리에 핵심간부 몇 명을 만나 회유와 협박으로 활동을 못하게 했고 나를 포함한 조합간부 3명을 정계위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통보를 했다. 5월 20일 근무시간에 불법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6월 4일에 열린 정계위에서 나를 포함한 조합간부 3명이 해고되었다. 해고사유는 ‘불법회의소집’과 ‘근태불량’이었다. 일사천리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마운 조합원들과 회사의 방해

조합원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회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자발적인 잔업거부에 들어갔고 조합에서는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대응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의 무단적인 탄압은 노조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있다.

회사는 조합간부가 아닌 4명의 현장아줌마들에게 너무나없는 이유를 대면서 고소고발과 6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조합원들을 끔찍 못하게 하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조합간부들에게 김밥을 갖다주었다고 고발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고발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는 치졸하고 교묘한 탄압이 닥치자 경찰서 한번 안 갖다온 조합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사는 나만 조용히 나가주면 모두 구제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해고되고 고소고발된 아줌마 조합원들이 “같이 고발시켰으니 모두 같이 철회하라”며 원강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들이시다.

뜻대로 잘 안되자 회사측은 내가 금속연맹에서 파견한 투쟁가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악선전을 해댔다. 그리고 내가 동광산업을 발판으로 정치적으로 크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해고자복직문제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진실을 모른다. 해고될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평범한 조합간부일 뿐이었지만 해고투쟁을 하고 1년을 넘기면서 진짜 ‘노동투사’가 되었다는 것을.

조합에서는 차기 집행부선거를 선속히 진행시켜서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복직투

쟁을 장기적으로 하기로 투쟁을 일단락 시켰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를 제외한 두 명의 해고자를 복직판정해서 두 명이 복직되었고 고소고발 또한 회사측이 끝까지 가면 불리하겠다고 판단했는지 나만 빼고 모두 철회시키게 되었다.

해고가 되었을 때는 앞이 막막했다. 이싸움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지만 망설이고 고민만 하면서 당할 수는 없었다. 회사측의 의도는 조합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만들기 위해 나를 해고시켰던 게 아닌가. 나는 차기 집행부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인 회계감사에 출마했고 암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

회사 사장은 내가 금방 포기하지 않고 조합 상근자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소회 때마다 “해고자를 도와주면 같이 해고시키겠다”,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왜 주느냐? 기두어주지 말라” 하면서 갖은 협박을 더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1년을 넘게 매월 40만원씩 생계비를 거두어 주었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복직투쟁을 끝까지 지지해 주었다.

조합원들의 굳센 믿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열렬한 바램이 나를 1년이 넘도록 투쟁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다. 1년이 넘게 꾸준히 김치를 담아주시면서 고생한다는 격려도 해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업복을 몰래 갖다 주시기도 하는 조합원들의 깊很深인 사랑이 훌륭리는 나를 바로 잡아주었다.

1년이 넘게 꾸준히 김치를 담아주시면서 고생한다는 격려도 해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업복을 몰래 갖다 주시기도 하는 조합원들의 끈질긴 사랑이
흔들리는 나를 바로 잡아주었다.

종업원에서 노동자로

97년 2월 임단투를 앞두고 회사에서는 그 동안 조합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하던 내게 출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회사에서는 안산지역에 있는 한국후꼬꾸, 덕부진흥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용역깡패를 들어올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을 고용해 조합사무실로 들어가는 나의 출입을 막도록 했다. 권리직들과 용역회사 사람들이 장문을 막았는데 조합원들과 나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그 후 출입가처분신청을 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조합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회사측은 그때는 “1년치 임금을 주겠다. 이것 받고 나가라”는 기만적인 안을 내놓았다. 돈밖에 모르는 이원재 사장의 머리에서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해고 투쟁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다. 부당해고 투쟁이 돈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싸울 필요가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 이유로 해고시킨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와 신나, 본드냄새로 직업병이 걸린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민주노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고 군센 의지로 기다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해고시키면서 투쟁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조합을 길들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편이다. ‘사원은 가족이다’라고 써 붙여놓고 종업원 의식을 강요하지만 옆에서 일하는 동료를 무자로듯 한 기세 내버리듯 쳐아내는 것을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는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작은 깨달음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바위로 굴러서 세상을 전동시키고 뒤엎을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껏 소리쳐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손을 하늘높이 쳐 올릴 수 있는 나는 이런저런 평계를 대며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출근투쟁을 하기 위해 새벽밥을 먹고 거리로 나섰다. 갈수록 뚜르러 가는 하늘을 보면서 내가 종업원에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향자계 밤걸음을 내딛는다. ♦